

## 미국 문학 속의 인종주의 - 쿠퍼의 『최후의 모히칸족』을 중심으로 -

신 문 수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 I

1997년 6월 15일,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분교의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1세기를 앞둔 미국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종의 화합을 통한 “하나의 미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인종차별 철폐(eracism = erase + racism) 운동에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호소는 예나 이제나 인종간의 갈등이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는 것을 새삼 상기시킨다. 일찍이 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을 목전에 둔 1944년,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민주적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의 존중이 중심적 가치를 이루는 “미국적 이념”에 상치되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인종 격리의 현실이 미국 사회가 해소해야 할 가장 심각한 “딜레마”라고 지적하면서, 이념과 현실의 이 괴리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해소되어 미국은 평등 사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바 있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는 반대로, 미국 사회는 그 진단이 나온 지 반 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종주의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60년대 이후, 흑인 민권운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 운동의 결과로서 사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특히,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피부색이 아니라 그 성격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바램은 여전히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관계에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종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흑인 노동자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촉발된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 인종 폭동은 두드러진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인종주의의 해소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모든 영역과 모든 층위에서 집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에 있다. 인종적 편견과 인종적 자의식은 나날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나 경제 행위 또는 취미나 오락과 같은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 인종주의는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 침투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체험되고 강화된다.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사회적 조건 자체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유포와 재생산의 악순환을 부채질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인종은 그 어떤 변인보다도 중시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 입장의 선봉에 서있는 오미(Michael Omi)와 와이넨트(Howard Winant)에 따르면, 그 동안 미국의 인종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 첫째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여러 소수 민족 집단의 주류 미국 문화에의 동화의 문제로서 다루는 경우인데, 흔히 미국 사회를 빗대어 “용광로”(melting pot)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입장에서이다. 둘째는 그것을 경제적 이해와 자원 분배의 불평등 구조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식민 체제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전지구적인 민족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서 보는 입장이 있다(14-51).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 시각은 인종 문제의 분석에서 종족성(ethnicity)·계급(class)·국가(nation)를 각각 핵심 변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구별된다. 오미와 와이넨트의 지적대로, 이 세 관점은 인종에 얽힌 복잡한 정황의 중요한 일면을 각각 부각시킨 공은 있지만, 인종을 다른 사회 문제의 부수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52-4). 오늘의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는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층만의 문제로 본다면 보다 중요한 사회 현상의 부차적 발현이라는 시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은, 앞에서 이미 시사한 대로,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부터 공적 영역에까지 두루 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문제는 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역의 제반 세력과 에너지들이 뒤엉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소용돌이로 나타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 이론가인 테리 콜릿츠(Terry Collits)는 인종주의를 “역사, 언어, 성과 계급, 그리고 재현과 해석의 문제가 얽히고 설킨 조밀한 이데올로기 체계들”이 교차하는 담론의 장으로 정의한 바 있다(64). 미국의 인종 문제도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살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 조망을 통해서만 인종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에 대한 근래의 문학의 관심도 근본적으로 인종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sup>

1) 인종 문제가 인문학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일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주요어』(Keywords; 초판 1976)에 race/racism이 수록된 것도 1983년에 나온 개정판부터이다.

인종과 관련하여 문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첫째는, 기왕의 정전화된 작품들을 거기에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인종 관계에 주목하여 인종적 해계모니가 관철된 역사적 현실과 과정을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그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문학 텍스트가 당대의 일반적인 인종 관계 양상과 그것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기제들의 작용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러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들을 유포시키고 영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였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는, 그 동안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이른바 인종적 타자들의 작품을 재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냄으로써 새로운 문학 전통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주지하듯 전자의 경우는 주로 신역사주의, 문화 연구, 혹은 탈식민주의의 이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통찰에 힘입은 바 크고, 후자는 이러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것과 역동적 상호 작용 속에 있는 최근의 다문화주의 운동과 정전 논쟁에서 얻어진 성과의 하나이다. 그 어느 쪽이든, 거기에는 문학 작품의 생산과 이해에 당대의 그릇된 인종적 편견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왔고, 그럼으로써 문학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존속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새삼스런 인식과 함께,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인종주의와 그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궁극적 의의는 한 마디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인종주의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인종주의에 대한 문학적 관심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인종적 편견을 타파하고 인종간의 화합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참다운 의미의 다문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인종의 과학적 분류는 19세기의 인종주의 생물학자들을 필두로 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간단없이 시도되어 왔지만, 인종을 어떤 본질적 자질로 보려는 이 같은 시도는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흔히 말하는 흑/백/황인종의 구분은 물론이려니와 그 하위 단계의 인종 구분 역시 그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랐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인도인은 영국에서는 “흑인”으로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을 그렇게 지칭한다. 인종 분류는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의 재미있는 비유대로 도서관의 책을 크기나 부피를 갖대로 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자의적이고 무의미한 일이다(38). 인종적 본질주의가 무의미한 또 다른 이유는 인종의 정의에 피부색이나 얼굴 형상과 같은 생물학적인 변인 못지 않게 경제적·문화적·정치적 변인들이 중요한 결정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종은 본질적 자질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이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인종은, 게이츠(Henry Louis Gates)의 지적대로, 차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요 메타포이다(5). 인종주의는 이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된다. 다시 말하여 인종주의는 인종적 범주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래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기에 포괄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차별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하여 인종주의는 잔모하메드(Abdul R. JanMohamed)가 설명하는 대로 신체의 외형적 차이를 어떤 본질적인 차이로 환원하고 그것을 다시 지적·도덕적 차이와 연관시키는 알레고리 구조를 갖는다. 인종 개념이 이처럼 실제로는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따른 임의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지배와 종속의 제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성(gender)과 계층(class)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의 서로 다른 시기마다 사회적 세력과 그 체제 그리고 그 역학 관계가 다르기 마련이고 인종적 정체성은 그것과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의 이해는 언제나 역사적 조건의 특수성을 살피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과 폴 길로이(Paul Gilroy)는 인종적 구성체(racial formation)의 이와 같은 역사적 구속성을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의 일반화를 경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의 심층적인 작용 메카니즘, 곧 특정한 인종 집단을 '타자화'(othering)시키는 전략과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가령, 서구의 민족주의 운동과 인종주의의 상관성을 주목한 바 있는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근대의 민족 국가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범슬라브주의나 범게르만주의 혹은 반유태주의의 동력학으로 작용하였던 타 종족을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인종주의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은 반유태주의에서 얻어진 유태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그들의 전통적인 적에게 투사시킴으로써(프랑스에서 "유태인"은 독일인이고, 독일에서 그것은 슬라브인이다), 민족적 결속을 도모하면서 각각의 민족적 이미지를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남아공 출신의 인종주의 이론가 데이빗 테오 골드버그(David Theo Goldberg)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실천으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표현되는 보편적 구조, 곧 인종주의의 문법 체계를 정립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런 입장에서 골드버그는 인종주의를 푸코가 말하는 하나의 담론 체계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인종주의적 표현이나 행태는 인종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제법주와 요소들의 선택과 결합의 결과로 보자는 제안을 한다. 골드버그는 따라서 인종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심층적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데, 분류, 위계화, 차별화, 배제, 종속, 제한 등이 그가 특히 주목하는 요소들이다.

인종주의가 작용하는 밑바탕에는 언제나 분류와 위계화에 대한 고려가 있다. 가령, 가장 흔한 황인종/백인종/흑인종의 분류에서부터 게르만족/튀턴족/슬라브족, 유태인/비유태인, 북부인/남부인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분류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다를 수 있다. 가령 17세기의 미국 사회에서

의 가장 의미있는 인종 분류는 백인('pale-pace')/인디언('red-skin')이었으나 19세기 말 이후로는 백인/흑인으로 바뀐다. 19세기 중엽 팽창주의 시대에는 백인을 더욱 세분한 앵글로 색슨계/스페인계/프랑스계/아일랜드계와 같은 분류도 백인/인디언/흑인의 분류 못지 않은 사회적 의미를 가졌다. 자료를 분류하는 일이야 인간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겠지만, 분류(classification)라는 용어 자체는 18세기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berg 315). 17세기이래 과학의 발달로 관찰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 과학적 방법론의 초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용어는 널리 쓰여지게 된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본성과 자질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면서 인간/동물의 구분은 지대한 관심 사항이었다. 마지막의 인간/동물의 분류가 시사하듯이, 분류는 거의 언제나 질서화 혹은 위계화를 수반한다. 분류 행위 자체가 비교와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상대화하는 작업이고 따라서 가치 개념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차이의 규명을 전제로 한 분류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로이다. 가령, 널리 알려진 “존재의 대연쇄”의 개념도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연의 질서를 그려본 것이기 때문에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종의 분류도 언제나 인종적 위계화가 전제되어 있다. 17세기 미국인들이 인종을 백인/인디언으로 분류하였을 때, 그 이면에 백인은 인디언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이미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회적 실천의 장에서 위계화는 이내 차별화를 부른다. 차별화는 정치 권력의 작용에서는 종속을, 재화의 배분에서는 배제를, 사회적 권익의 향유에서는 제한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상호 동시 작용으로 서로서로를 강화하면서 특정한 인종 집단을 타자화하고, 그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그것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다. 차별화의 과정에 작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투사(projection)와 전형화(stereotyping)이다. 지배적인 인종 집단은 인종적 타자에게 그들 집단 내의 타자적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타자 집단의 주변화를 가속화시킨다. 예컨대, 17세기 청교도들은 종종 인디언을 사탄의 후예로 매도하였는데, 신대륙에 건너오기 전에 영국에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그렇게 비난하였었다. 인종적 타자들은 또한 개별적 주체로서 정의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언제나 집합적으로서만 호명된다. 영국인들이 북미 대륙에 건너왔을 때, 거기에는 수천의 서로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동질적 집단으로 추상화되어 그저 “인디언”으로 불려졌을 뿐이고, 그것도 많은 경우 단수 남성 대명사 ‘he’로 총칭되어졌다.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인종적 타자를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로 구성되는 것을 봉쇄하고 마르크스의 유명한 비유대로 “자루 속에 가득 찬 감자”(608)로 남아 있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상의 두 가지 시각--특정한 역사적 체험으로서 혹은 초역사적

인 일반 구조로서--을 방법적 전략으로 고려하면서 1826년에 발표된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의 『최후의 모히칸족』(*The Last of the Mohicans*)에 나타난 인종주의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1803년 제퍼슨 행정부의 루이지애나 구입과 뒤이은 루이스(Meriwether Lewis)와 클라크(William Clark)의 서부 탐험과 더불어 미국은 국가 체제 확립을 둘러싼 혼란과 분열을 수습하면서 국가적 관심을 광대한 서부의 미개지로 돌린다. 1652년 청교도 시인 마이클 위글스워스(Michael Wigglesworth)는 정착지 너머의 자연을 “쓸모 없이 버려진, 바람 소리 요란한 황야”(A waste and howling wilderness)라고 묘사하였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그것은 삶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서부 팽창이 본격화되는 1820년대에 이르러 서부는 문명 사회의 긴장된 질서와 기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문명에 지친 인간의 정신을 갱생시키는 터전으로 한층 미화된다. 그리하여, 문명 세계를 뒤로 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한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가 「담장고치기」(“Mending Wall”)라는 시에서 “담장을 싫어 해서/ 담장을 허물어뜨리고 싶어하는” 충동이라고 표현한 바있는 특징적 성향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 자연 속에 홀로 선 새로운 인간의 전범을 우리는 쿠퍼의 『레더스톡킹 이야기』(*The Leatherstocking Tales*) 연작의 주인공 내티 범포(Natty Bumppo)에게서 발견한다.

내티 범포는 한 마디로 문명과 자연의 중간지대를 사는 “변경인”(frontiersman)이다. 그는 투박하고 거칠지만 정직하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기민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법과 질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바르고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율적인 인간이다. 요컨대, 그는 프레데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가 변경의 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한 미국인의 독특한 자질--“거칠고 강하면서도 예리하고 탐구심이 강하고, 재빠르게 편법을 찾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성향, 예술적 감각은 결여되어 있지만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만큼 굳세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힘, 그칠줄 모르는 에너지, 좋은 결과는 물론 나쁜 결과도 낼 수 있는 개인주의, 자유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쾌활하고 여유있는 성격”(57)--을 두루 갖춘 이른바 “미국적 성격”의 전형이다. 그런데 광활한 “자연의 나라”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역센 개인주의”(rugged individualism)의 권화로서 범포의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그와 인디언과의 관계, 곧 인종적 대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발표된 연대상으로 이 연작 소설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최후의 모히칸족』에서 이 점은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있다.

주지하듯,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는 청교도 시대부터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낯선 이방의 땅에 참다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 소명으로 알고 고향을 떠나 온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문명의 본질과 그 미래상이 무엇인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독립을 눈 앞에 두고 프랑스 출신의 미국인 크레브코르(J.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는 「미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범적 예일 뿐이다. 크레브코르는 억압적인 구제도에 묶여 있는 유럽과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과 미국 문화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자적 이미지를 제공한 것은 유럽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이었다. 일찍이 1606년 버지니아 식민자들에게 칙허장을 주면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는 식민 사업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경배할 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장차 때가 되면 이 이교도 야만인들에게 문명과 안정된 정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썼다(Pearce 6 재인용). 여기에 천명되어 있듯이, 미국 사회는 식민지시대는 물론 독립 이후에도 미개한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우월한 백인 기독교 문명을 전파시키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백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을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의고적이고, 유아적인 존재로 타자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율과 독립심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가장 선진적인 문명인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표현을 빌면, “아프리카인의 존재는 미국인들이 자신이 노예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며, 무기력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는 힘센 존재이고, 역사가 없는 종족이 아니라 역사를 가졌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순진무구하고, 진화의 도정의 한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수단”(52)이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대략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지녔던 인디언관은 로이 하비 퍼스(Roy Harvey Pearce)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셋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인디언을 자연 상태에 사는 야만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인디언관은 청교도시대부터 대체로 독립 이전까지 백인들의 의식을 지배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미개한 인디언을 교화시키고 기독교도로 개종시켜 문명 세계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백인 문명의 임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략 18세기 중엽부터 인디언

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인디언관에 회의적인 두 번째 인디언관이 대두하는데, 여기에서 인디언은 교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본성과 생활 양식이 백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래서 서부로 팽창해 나가는 백인 문명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다분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고결한 인디언”(the Noble Savage)의 이미지가 싹튼 것도 이 시기인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문명은 인디언의 타고난 고결한 품성을 파괴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문명의 전진에 이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수반하였다. 서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는 19세기초에 대두한 세 번째 인디언관은 두 번째 인디언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디언은 문명의 초보적인 단계, 곧 백인 문명이 거처온 원시 상태에 처해 있다기보다는 반문명적인 것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반문명은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인디언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있는 논리이다(xi-xii). 요컨대, 백인들에게 인디언은 그 자질이 열등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인종적 타자였다. 그들은 이렇게 그런 인디언의 모습과 대자적인 이미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백인의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그 문명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은 열등한 인종적 타자로 남아 있어야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표현을 빌어 다시 말한다면, 미국에서 인디언은 단순히 인디언인 것이 아니라 바로 백인과의 관계에서 인디언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sup>2)</sup>

1826년에 발표된 『최후의 모히칸족』에서도 우리는 위에서 말한 세 인디언관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그 부제(“A Narrative of 1757”)가 말해주듯, 북미 대륙의 식민지 지배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간에 벌어진 이른바 프랑스-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을 배경으로 한다. “호크아이”(Hawk-eye) 혹은 “장총”(la Longue Carabine)이라는 별칭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내티 범포는 뒷날 선보일 『사슴 사냥꾼』(*The Deerslayer*, 1841)에 나타나는 미숙한 청년기를 지나 활기차고 사리판단이 뛰어난, 그의 생애의 절정기의 모습이다. 그의 뛰어난 면모는 그의 일행이 마구아(Magua)라는 인디언 그리고 그가 이끄는 휴런족 인디언과 벌이는 싸움을 통해서 눈부시게 발휘된다. 마구아는 원래 휴런족 일파의 한 추장이었으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부족들로부터 쫓겨나 숲 속을 전전하다가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모호크족에 의탁하여 생활해 온 인물이다. 마구아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가 의탁해 있던 모호크족을 따라 영국군 수비 사령관 먼로 대령을 돕게 되었는데, 어느날 전군에 내려진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이 발견되어 그 별로 태형

2) 파농은 “흑인은 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 검어야 한다”(“...not only must the black man be black; he must be black in relation to the white man”)고 말한 바 있다(110).



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는 이를 앙갚음 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프랑스군에 포위된 아버지를 찾아가는 먼로 대령의 두 딸 코라와 엘리스의 길 안내인을 자청하여 나서서 이들을 납치하고자 한다. 소설은 숲 속에서 코라 일행과 우연히 조우하게 된 호크 아이와 그의 동료 모히칸족 인디언인 칭가츠국(Chingachgook)과 그의 아들 웅카스(Uncas)가 한편이 되어 마구아의 그런 기도에 맞서 두 백인 여자를 구해내기 위하여 벌이는 일련의 모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납치/추적/탈출/도피의 연쇄로 이루어진 플롯 구성, 특히 소설의 후반부에 휴런족 캠프로 납치된 코라와 엘리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호크아이 일행이 벌이는 변장과 속임수를 활용하는 활극적 요소에서 이 작품이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까닭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궁극적 의미는 활극적인 사건과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엮어내는 인물들의 전형성에 주목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약 70년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프랑스-인디언 전쟁기로 설정되어있지만 『최후의 모히칸족』에는 그것이 발표된 18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반영되어 있음이 물론이다. 그 시대적 정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816년의 미국 식민화 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의 창설과 1824년에 발표된 먼로 대통령의 인디언 이주 정책이다. 전자는 흑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것이고, 후자는 대륙 동쪽의 인디언을 서부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최후의 모히칸족』은 이처럼 흑인과 인디언을 제거하여 미국을 순수한 백인의 나라로 만들자는 인종 분리주의의 열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다. 『최후의 모히칸족』이 쿠퍼의 문학 세계에서 인디언의 역사와 풍속을 심도있게 다룬 첫 작품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최후의 모히칸족』에는 두 부류의 인디언이 등장한다. 주인공 호크아이를 따르는 두 인디언 칭가츠국과 웅카스가 고결한 인디언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마구아와 그가 이끄는 휴런족은 야만적이고 사악한 인디언이다. 그러나 고결하고 사악한 것에 상관없이 이들은 인종적 자질에서 모두 백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인디언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소설은 그 기준이 그들의 신체적 발달 정도나 자질 혹은 도덕적 품성에 있다기보다는 백인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 요구에 잘 순응하는지 여부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구아가 악한 인디언인 것은 그가 코라와 엘리스를 납치하고, 무엇보다도 휴런족을 선동하여 윌리엄 헨리 진지를 프랑스군에게 내어주고 떠나는 영국군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구아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디언족 추장인 그에게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지 않고 모욕을 가한 먼로 대령에 대한 복수이면서 동시에 인디언족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사냥터에서 내몬 백인들을 응징하는 정당한 행동인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육체를 소유한 “흠없는 인간의 전형”(53)

으로 상찬되고 있는 웅카스 못지 않게, 마구아 역시, 소설의 첫머리에서 코라가 찬탄 하듯이, 건장하고 날렵한 몸을 가졌고, 또한 휴런족을 결집시키고 델라웨어족 추장 타메누드를 설득하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인물이다. 마구아의 모습에는 말하자면 인디언을 “고결한 야만인”으로 낭만화하는 시각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는 그가 코라와 엘리스로 표상되는 백인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면서 인디언을 사악한 종족으로 보는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인디언의 건장한 신체에 대한 빈번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도 당대의 일반적인 인디언관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웅카스는 “완벽한 형태미”를 지닌 희랍 조각상과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디언을 문명화로 인해 백인이 상실해버린 원시적 건장함의 표상으로 보는 시각이 잠재해 있다. 인디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떠돌이 찬송가 영창자(psalmody)로 등장하는 개멋(David Gamut)의 신체적 불균형 그리고 그의 심약함과 대조되어 더욱 강화된다. 기실 이 소설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비판의 초점은 인디언을 너무 이상화시켰다는데 모아졌다. 가령, 필라델피아 출신의 소설가 윌리엄 버드(William Bird)는 쿠퍼의 인디언이 관념적인 허구임을 폭로하기 위하여 『숲속의 닉』(*Nick of the Woods*, 1835)을 썼다고 공언할 정도였다(Peck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모히칸족』에서 인디언적인 것은 필경 원시적(primitive)이고, 의고적(archaic)이며, 유아적인 것(infantile)과 동의어를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후의 모히칸족』은 당대 미국 사회의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집단을 대변하는 스테레오타입적 인물들이 양식화된 행동을 연출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백인은 백인으로서, 인디언은 인디언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주어진 전형적 역할에 충실하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의 인물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들이 대변하는 사회적 범주에 기대되는 특질의 충실한 구현체이다. 정해진 사회적 범주나 기대치로부터의 이탈이 있더라도 그것은 제자리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이탈일 뿐이다. 소설에서 사적 긴장을 시종 부여하는 웅카스와 코라의 결합 가능성은 이런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군 지휘관 먼로 대령과 서인도 제도의 크레올 여자 사이에 태어난 코라에게 웅카스와 마구아가 성적으로 이끌리는 것은 말하자면 인종적 타자로서의 동류 의식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헤이워드도 예상과 달리 섬약하기만 한 엘리스에게 청혼한 것도 동일한 인종끼리 느끼는 본능적 친화감의 결과임을 텍스트는 시사한다.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긴다는 당대의 본질주의적인 인종관이 개재되어 있다. 코라의 혈관 속에 흑인의 피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기준으로 그녀는 어쨌든 백인이다. 쿠퍼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휴런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코라와 엘리스의 구출 과정에서 웅카스의 용맹과 헌신을 두드러지게 함과 동시에 델라웨어족의 조종 부족인 모히칸족 추장의 후손으로서 그의

존엄한 신분을 재확인시킴으로써 그와 코라의 결합의 가능성을 한껏 고조시키면서도, 결국 그 결합이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귀결짓고 만다. 주어진 사회적 범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최후의 모히칸족』은 결과적으로 인종적 정체성의 불변성, 피부색의 경계를 넘는 것의 불가능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모히칸족』의 플롯은 이처럼 전형화된 인물들이 펼치는 양식화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잡한 내면 심리, 도덕적 성숙, 개성의 발양과 같은 근대 소설의 주요 관심사로부터 동떨어진 세계이다. 이런 점에서 호크아이와 그를 따르는 두 고결한 인디언, 칭가츠국 및 웅카스와의 관계는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는 호크아이와 칭가츠국의 관계의 본질을 미국 문학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어진 사회적 틀을 벗어나 정신의 갱생을 추구하는 모험 길에 나선 남성 주인공이 낯선 황야에서 만난 인종적 타자와 맺는 독특한 동료애로 파악한다(192). 이들의 관계에서 이런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결코 상호 존중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칭가츠국과 웅카스에게는 발언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호크아이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예외적으로 발언이 허용되는 소설의 첫머리에서 칭가츠국은 강하류의 삼각주에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현상을 델라웨어족의 신화적 사유를 빌어 강물과 바닷물의 흐름의 균형 문제로 설명하는데, 호크아이는 곧바로 그것은 조수 현상의 결과라고 칭가츠국의 설명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성경의 권위를 빌어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칭가츠국의 아들 웅카스의 경우도 뛰어난 능력과 “완벽한 형태미”를 갖춘 건장한 육체를 소유한 “고결한 야만인”의 전형으로 종종 상찬되지만, 그 역시 재능이나 사리판단에서 호크아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쿠퍼는 소설의 곳곳에서 인디언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믿음 체계, 사고 방식을 빈번히 소개하면서도 거의 언제나 그것을 백인 문명에 대비시켜 격하시키거나 인디언들 스스로가 부정하게 하고 있다. 요컨대, 칭가츠국과 웅카스가 아무리 선량하고 기품있고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백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디언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호크아이와 칭가츠국의 관계를 통해 쿠퍼가 백인과 인디언의 평등성과 공존공영의 화합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로이 하비 퍼스는 『레더스틱킹 이야기』에서 인디언은 주인공인 내티 범포의 정체성, 그의 성격, 그리고 그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는 데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일 뿐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201). 칭가츠국과 웅카스가 추장의 후예로서 신분이나 자질에 있어서 그의 부족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호크아이의 우수성과 백인 문명의 우월함을 전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 호크아이는 태생은 백인이지만 인디언족과 더불어 자란 “혼성적” 존재이다. 그가

일행을 이끄는 지도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문명 세계와 자연, 백인과 인디언, 그 양편의 자질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가령, 그의 날랜 총솜씨와 기민한 판단력은 문명적인 자질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해주는 숲 속 세계의 지리와 형편, 또는 인디언의 습속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인디언적인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이워드나 먼로 그리고 코라와 엘리스 두 자매가 표명하는 인디언 일반에 대한 호감을 현실을 모르는 무지와 감상주의의 소치로 폄하한다. 그는 청가츠국이나 웅카스는 극히 예외적인 인디언임을 주지시킨다. 뿐만 아니라 호크아이는 글렌 폭포를 묘사하면서 이제까지 그의 삶의 터전이 거친 황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혼란스런 무질서보다는 문명의 이성적 질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는 소설의 전편에 걸쳐서 자신을 “혈통이 순수한 사람”(a man without cross)이라고 입버릇처럼 내세워 자신이 순수한 백인임을 말한다. 그는 또한 숲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인디언적 기술,” “인디언적 성향,” “인디언적 방식,” 혹은 “인디언적 자질” 등으로 유형화하여 동행하는 백인들에게 소개한다. 이처럼 소설의 곳곳에서 백인/인디언 혹은 문명/자연의 대립에 입각한 여러 가지 범주화가 줄곧 이루어지는데, 그 밑바탕에는 백인 문명이 우월성과 인디언 사회의 미개함을 강조하는 고정 관념이 배어 있다.

### III

앤드루 잭슨 행정부가 인디언 이주를 공식화하기 직전인 1828년에 발표된 『미국인론』(*Notions of the Americans*)에서 쿠퍼는 “인디언은 백인의 우월한 도덕적 물리적 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썼다(Pearce 201 재인용). 쿠퍼의 인디언은 한 마디로 미국 문명의 전진 앞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종족이다. 백인과 인디언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종이고, 이 때문에 두 종족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갈등은 열등한 인종이 절멸되는 필연적 과정을 거쳐서 종식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쿠퍼 역시 그런 입장을 수용하였다. 『최후의 모히칸족』에서 쿠퍼의 이런 입장은 백인 문명에 대한 그의 비판적 어조로 인해 놓치기 쉽다.

쿠퍼는 『레더스탁킹 이야기』 연작의 첫 작품인 『개척자』(*The Pioneers*, 1823)에서부터 백인 문명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척으로 인한 자연 환경의 황폐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신대륙의 아름다운 자연의 훼손을 초래한 “문명의 래습”에 대한 쿠퍼의 우려는 두번째 작품인 『최후의 모히칸족』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예컨대 이 소설

의 첫머리는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프랑스-인디언 전쟁의 두 당사자인 영국과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쟁패를 문명의 탐욕으로 질타하면서 양측의 피비린내나는 살육으로 전인미답의 신대륙의 자연이 오염되고 훼손되어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채우져 있다. 주인공인 호크아이 또한 소설의 한 대목에서 백인 정착지에서 “자연은 인간에 의해 슬프게도 능욕되고 있다”(121)고 한탄하면서 백인 문명의 끝없는 정복욕으로 인한 태고적 자연의 파괴를 염려한다. 백인 문명의 무분별한 정복욕과 그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대대로 삶을 영위해온 인디언 원주민의 “절멸”(extermination)을 초래하였다. 『최후의 모히칸족』에 표명되어 있는 인디언에 대한 동정어린 시선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자연을 침탈하는 서부 개척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과정의 부산물인 것이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델라웨어족의 족장 타메누드가 참석한 가운데 마구아에게 예외적으로 백인을 비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비판 역시 백인들의 끝없는 탐욕에 모아진다.

그[=창조주]는 이들[=백인들]에게 비둘기의 자질을 주었다. 곧, 지칠줄 모르는 날개와 활기와 나뭇잎들보다 더 많은 풍요함을 주었다. 그리고 온 천지를 집어 삼키는 탐욕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백인들에게 들코양이의 기만적인 목소리를 주었고, 토끼같이 영악스런 마음과 수탉지의 교활한 (여우의 지혜가 아닌) 탐욕과 사슴의 다리보다 더 긴 팔을 주셨다. 그들은 혀로 인디언이 들을 수 없도록 귀를 틀어 막았다. 그들은 또한 영악스러움을 발휘하여 전사들에게 돈을 주어 자신들의 싸움에 대신 나서게 하였다. 그들은 교활하여 이 지상의 재화를 끌어모으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그들의 팔은 저 아득한 바닷가에서부터 큰 호수의 섬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움켜지었다. 그들은 탐식으로 병이 날 정도이다. 신은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셨건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를 원한다. 백인이란 그런 종족들이다. (301)

『최후의 모히칸족』에서 백인 문명의 탐욕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그러나 작은 파장에 불과하다. 그것은 백인 문명의 서진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이라는 도도한 물결 앞에 파묻혀 버린다. 그러기에 『최후의 모히칸족』은 사라져가는 한 인디언 종족에게 바치는 엘레지이면서 동시에 백인 문명의 진보에 대한 송가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후의 모히칸족』 후반부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윌리엄 헨리 진지를 프랑스군에게 내어주고 나오는 영국군을 공격한 휴런족에게 포로가 되어 그들의 요새로 끌려간 코라와 엘리스를 구출해내기 위해 호크아이 일행이 벌이는 분장극은 주목을 요한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희극적이기까지 한 이 분장극이 주목되는

것은 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대립되는 집단의 일원으로 분장을 한다는 점에 있다. 가령, 식민지군 장교인 덩컨 헤이워드는 인디언 광대로, 호크아이는 곰가족을 뒤집어 쓴 휴런족 마술사로 각각 분장한 다음 휴런족 캠프로 들어가 앨리스의 소재를 찾아내서 그녀를 병든 인디언 여자로 위장시켜 가지고 캠프를 빠져 나온다. 이 분장극을 통해, 헤이워드는 프랑스 측에 가담하고 있는 휴런족 인디언으로 분장함으로써 국적과 인종이라는 두 사회적 범주의 경계를 넘어서 본 것이고, 앨리스는 인종의 경계를, 그리고 휴런족 마술사로 분장한 호크아이의 경우는 그의 인디언 자질을 고려한다면, 무려 세 가지 사회적 범주, 곧 인종, 부족,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 본 셈이 된다.

이 분장극은 얼핏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들이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공존공영하는 길의 모색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가면이 벗겨지면서, 이 분장극을 통한 대립되는 사회적 범주들의 합체는 한갓 환상에 불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델라웨어족과 휴런족의 적대의 골은 더 깊어졌고, 소설의 부플룻으로서 서사적 긴장을 시종 유발시켰던 코라와 웅카스의 인종을 초월한 결합 가능성은 두 사람의 비극적 죽음으로 무산되고, 아울러 모히칸 부족은 그 최후의 혈통계승자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결말이 약속하는 헤이워드와 앨리스의 결혼은, 제인 탐킨스(Jane Tompkins)의 지적대로, 이 분장극이 일시적으로 허물어뜨린 인종과 부족과 국적의 경계가 결코 건너될 수 없는 것임을 더욱 힘주어 강조하는 듯하다(115). 요컨대, 『최후의 모히칸족』은 피부색이 서로 다른 인종간의 결합(miscegenation)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면서 그것을 곧바로 부정함으로써, 백인은 인디언이나 흑인과는 근본적으로 자질이 다른 인종이라는 당대 백인들의 지배적인 인종관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코라와 웅카스를 장사지내는 마지막 장면에서 먼로 대령이 “성과 계급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의 신을 함께 경배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347)이라는 소망을 표명한 데 대하여 호크아이는 이를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부정하는데, 이와 같은 호크아이의 냉엄한 현실주의를 통하여 인종 분리의 당위성이 거듭 천명되고 있는 셈이다.

19세기의 전반기에 씌어진 인디언과 백인의 인종 관계를 다룬 변방 소설(frontier romance)에 대해 연구한 루이즈 바네트(Louise Barnett)에 따르면, 『최후의 모히칸족』의 결말은 범례적인 것이다. 바네트는 백인 주인공은 결국 여주인공과 결혼을 하고, 사악한 인디언은 살해되고, 선량한 인디언은 살아남더라도 뒤를 이을 후손을 갖지 못하고 죽어 가는 플롯 구성이 변방 소설의 하나의 정형적 패턴임을 보고하고 있다(21). 청교도 시대의 포로 수기(captivity narrative)에서 보이듯이 백인의 생존 문제는 더 이상 이 소설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들이 거의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백인에 의한 대륙 지배의 불가피성이다. 한편으로는 고결한 인디언의 사멸을 아쉬워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문명의 진보를 신의 섭리로 혹은 역사적 필연으로 역설하는 것은 쿠퍼를 포함한 이 시기의 대다수 백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학적 토포스였던 것이다.

『최후의 모히칸족』의 1831년도 판 서문에서 쿠퍼는 북미 인디언들은 문명의 진전 앞에서 “매서운 가을 서리 앞에 낙엽떨어지듯이”(7) 사라질 운명이라고 쓰고 있다. 인디언의 사멸을 계절의 순환을 말하는 수사에 의탁하여 표현함으로써, 쿠퍼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의 선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미국의 북미대륙의 정복이 자연의 섭리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행간에 스며있는 애도의 토운은, 로라 로메로(Lora Romero)가 지적하는 대로, 1830년의 인디언 이주령으로 인디언족과 정부군간의 군사적 충돌이 북미 대륙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인디언의 절멸이 이미 완료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115). 『레더스틱킹 이야기』를 비롯한 이 시기에 씌어진 많은 변방 소설의 공간에서 서부 정복은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인디언의 열등성을 말하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 인디언 살해를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경으로 물려든 사냥꾼, 개척자, 투기꾼들을 문명의 진보와 민주적 자유의 이념을 신봉하는 미국적 성격의 전형으로 선양하는 “자기 초월의 신화”(the myth of self-transcendence)를 고취시켰다. 서부는 미국 문학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에드윈 퓨셀(Edwin Fussell)의 주장은 과장만은 아닌 것이다(11).

## 참 고 문 헌

- Appiah, Kwame Anthony. *In My Father's House: Africa in the Philosophy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 Balibar, Etienne. "Paradoxes of Universality." *Anatomy of Racism*. Ed. David Theo Goldberg.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0. 283-294.
- Barnett, Louise. *The Ignoble Savage: American Literary Racism, 1790-1890*. Westport: Greenwood Press, 1975.
- Collits, Terry. "Theorizing Racism," *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 Ed.. Chris Tiffin & Alan Lawson. London: Routledge, 1994. 61-9.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1967.
- Fiedler, Leslie A.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New York: Stein

- and Day, 1966.
- Fussel, Edwin. *Frontier: American Literature and the American Wes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5.
- Gates, Henry Louis. "Editor's Introduction."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Chicago: Chicago Univ. Press. 1-20.
- Gilroy, Paul. "One Nation under a Groove: The Cultural Politics of "Race" and Racism in Britain." *Anatomy of Racism*. Ed. David Theo Goldberg. Madison: Wisconsin Univ. Press, 1990. 263-82.
- Goldberg, David Theo. "The Social Formation of Racist Discourse." *Anatomy of Racism*. Ed. David Theo Goldberg. 295-318.
- Hall, Stuart. "Racism and Moral Panics in Post-war Britain." *Five Views of Multi-racial Britain*. Ed.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London, 1978.
- JanMohamed, Abd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78-106.
-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The Marx-Engels Reader*. Ed. Robert C. Tucker. New York: Norton, 1972. 594-617.
- Morrison, Toni.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2.
-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1986.
- Pearce, Roy Harvey. *Savagism and Civilization: A Study of the Indian and the American Min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 Peck, H. Daniel. "Introduction." *New Essays on The Last of the Mohicans*. Ed. H. Daniel Peck.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 1-23.
- Romero, Lora. "Vanishing Americans: Gender, Empire, and New Historicism." *The Culture of Sentiment: Race, Gender, and Sentimentali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Ed. Shirley Samuel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115-27.
- Tompkins, Jane. *Sensational Designs: The Cultural Work of American Fiction, 1790-1860*.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5.
- Turner, Frederick Jackson Turner.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Ed. Harold P. Simonson. New York: Continuum, 1991.



<Abstract>

Aspects of Racism in Fenimore Cooper's  
*The Last of the Mohicans*

Shin, Moonsu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ace has been a crucial determinant of the social order in America from the period of American colonization. Dispersed through every level of culture, ideas of race have served to define the social and political relationships of the various ethnic groups in American society. Race has never been a stable idea or a fixed concept. It has been invented, promulgated, and legislated to describe the racial order under different historic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Literature has played a key role in naturalizing and inscribing this process of racial formation. Fenimore Cooper's *The Last of the Mohicans* is a case in point.

*The Last of the Mohicans*, published in 1826, typifies American attitudes toward race relations in the era of America's westward expansion. Here Natty Bumppo, the celebrated hero of the Leatherstocking Tales, appears as the *beau ideal* of the frontiersman, who is agile, quick to find expedients, and well informed with the Indian ways and wilderness. His characteristic self-confidence, and practical and inventive turn of mind along with these qualities certainly justify the mythologization of him as the American character. However, much of his skill and knowledge which allows him to be the most effective of the warriors in the wilderness is gained through his association with his Indian friends, Chingachgook and his son Uncas. Nevertheless, he continually identifies himself as "a man without cross." Natty's emphasis on the purity of his blood line reflects the contemporary racial view shared by most whites that the pure and unmixed race is best. Underlying this is also the racial essentialism that whites are different from non-whites. This implies that the racial identity of Americans has been established by positing the

native people as the inferior Other.

The Indians, whether noble or ignoble, in *The Last of the Mohicans* are delimited by the special nature of their society. It is seen as a whole to be morally inferior and historically anterior to white civilization. The message that the Indian is doomed to die out before the superior moral and physical influence of whites is emphatically delivered by the end of the novel, where the “bad” Hurons are almost wiped out, and the “good” Indians lose their last remaining chief.